

청년이 말한 여수, 정책이 시작된 1 년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활동백서

2025. 7. 19. — 2026. 7. 19.

말하다

청년의 일상과 경험

기록하다

공론장과 현장의 목소리

제안하다

정책으로 이어지는 참여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활동백서

이 백서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가 위촉 1 년을 맞아 지난 활동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2025 년 7 월 21 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분과개편, 운영체계 정비, 공식 SNS 운영, 오프라인 설문조사, 청년의 날 청년페스타 부스 운영, 청년아고라, 정책제안 그리고 민선 9 기 여수시장 당선인 청년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결코 한 번의 회의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청년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고, 청년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제안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년이 말한 여수, 정책이 시작된 1 년.

이 기록이 앞으로의 여수 청년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목차

01 여는 글	02 숫자로 보는 제 6 기 협의체
03 제 6 기 협의체 소개	04 1 년의 활동 기록
05 청년아고라 기록	06 정책제안 결과
07 분과별 활동 기록	08 활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09 함께한 사람들	10 부록

여는 글	4
백서를 펴내며	4
숫자로 보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5
제 6 기 협의체 소개	6
1 년의 활동 기록	8
민선 9 기 당선인 청년정책 간담회	18
청년아고라 기록	20
일곱번의 이야기, 청년아고라의 의미	22
정책제안 결과	23
1 차 정책제안	23
2 차 정책제안	24
분과별 활동 기록	26
제 6 기 활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30
앞으로의 과제	32
마무리하며	33
함께한 사람들	34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38
특별감사	40
부록	41

CHAPTER 01

여는 글

백서를 펴내며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는 위촉 이후 여수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 년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여수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불편함, 바라는 변화, 머물고 싶은 도시의 조건을 직접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책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출범 이후 분과를 재편성하고, 기존에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던 분과회의, 운영위원회의, 정례회의 역할을 정비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을 정례회로 확정하고, 여수청년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정례회 고정 운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식 SNS 개설, 협의체 로고 제작, 청년송 공동프로젝트, 협의체 활동 깃발 제작 등을 통해 협의체의 정체성을 시민과 청년에게 더 쉽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은 **별도 추가예산 없이 재능기부와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주어지는 행정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언어로 말하며,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쉽고, 열려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백서는 제 6 기 협의체가 지난 1 년 동안 걸어온 활동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여수 청년들이 말한 현실과 바람을 남기는 자료이자, 앞으로 여수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제 6 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촉식 단체사진

CHAPTER 02

숫자로 보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의 지난 1 년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고, 정책으로 연결한 시간이었습니니다.

20 명 현재 위원	4 개 운영 분과	2 회 총회
13 건 공식 정책제안	약 300 명 오프라인 설문 응답	7 회 청년아고라
약 80 명 아고라 누적 참석	36 개 SNS 게시물·릴스	165 명 SNS 팔로워
약 20 명 플로깅 참여	3 명 시장·시의회의장 표창	약 100 분 민선 9 기 간담회

운영 기준과 상세 실적

구분	내용
제 6 기 위촉 1 년 기준	2025. 7. 19. ~ 2026. 7. 19.
공식 위촉식	2025. 7. 21.
분과 구성	참여·홍보 / 일자리·교육 / 주거·복지 / 관광·문화
정례회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저녁 8 시 정례 운영 (저녁 7 시 청년아고라 진행)
공식 SNS	Instagram @0people.yeosu

제 6 기 협의체의 1 년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고, 정책으로 연결한 시간이었습니니다.

또한 예산부족과 재능기부라는 한계 속에서도 청년참여의 구조를 만들고, 현장으로 나가 청년들과 직접 만난 시간이었습니니다.

CHAPTER 03

제 6 기 협의체 소개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는 여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조례상 설치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청년참여기구**입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2025 년 7 월 21 일 공식 위촉식 이후 현재 20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송영선 위원장과 송명훈 부위원장** 그리고 **김나은 사무국장이 임원진**을 구성하고, **참여·홍보, 일자리·교육, 주거·복지, 관광·문화**의 4 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과는 청년의 삶과 밀접한 의제를 나누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 6 기 협의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방향은 “더 많은 여수 청년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정책이 협의체 내부 회의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청년아고라와 오프라인 설문조사, 청년페스타 부스 운영, SNS 홍보,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분과 구성

분과	분과장	주요 역할
참여·홍보	김수정	청년참여 확대, 협의체 홍보, 청년아고라 확산, SNS 콘텐츠 운영
일자리·교육	추승혁	청년 일자리, 직무 경험, 지역 기업과 청년 연결, 교육·진로 의제 발굴
주거·복지	윤성용	청년 주거 안정, 생활복지, 이동권, 돌봄, 정주 여건 개선 의제 발굴
관광·문화	천주현	청년문화, 버스킹, 축제, 섬·유희공간 활용, 청년 주도 문화기획 의제 발굴

분과 재편성의 의미

제 6 기 협의체는 위촉 이후 협의체의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며 분과를 재편성했습니다. 분과 재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다양한 여수 청년들과의 소통 기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협의체가 내부 회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실제 고민과 의견을 더 넓게 듣기 위해서는 분과별 역할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홍보, 일자리·교육, 주거·복지, 관광·문화**의 4 개 분과 체계를 중심으로 청년의 삶과 밀접한 의제를 나누고, 각 분과가 청년아고라, 설문조사, 정책제안, 홍보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재편성은 단순한 조직 구분이 아니라, 여수 청년정책의 현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분과 재편성의 핵심은 다양한 여수 청년들과의 소통 기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운영체계 구조화의 의미

01	02	03	04
분과회의	운영위원회의	정례회	청년아고라
의제 발굴·논의	안건 조정·심의	공유·의결	시민 공론·의견수렴

제 6 기 협의체는 위촉 이후 기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던 운영 흐름을 정비했습니다. 분과회의, 운영위원회의, 정례회의 역할을 구조화하고,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을 정례회**로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과회의는 의제 발굴과 논의를 담당하고, 운영위원회의는 안건 조정과 심의의 역할을 맡으며, 정례회는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의결하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협의체 활동이 개인의 열정이나 일회성 회의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또한 여수청년지원센터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매회 별도로 대관을 예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례회 고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활동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년참여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CHAPTER 04

1 년의 활동 기록

초기 운영 기반 조성

제 6 기 협의체는 위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협의체 운영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2025 년 7 월 21 일 위촉식 이후, **7 월 23 일 차담회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며 협의체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7 월 31 일에는 분과개편**을 통해 참여·홍보, 일자리·교육, 주거·복지, 관광·문화의 4 개 분과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을 정례회**로 확정하고, 기존에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던 분과회의, 운영위원회의, 정례회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6 기 협의체는 단순한 위원 모임을 넘어, 청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 년 8 월 11 일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별도의 예산 없이 재능기부를 통해 SNS 를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점은 제 6 기 협의체의 활동 방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25 년 9 월 4 일에는 협의체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 없이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협의체의 정체성을 시민과 청년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위촉식에서 제 6 기 협의체 임원진 선출이 이루어졌다



협의체 로고 제작을 의결한 후 AI 를 활용한 최초(안)

정례회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는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을 정례회로 확정하고, 정례적인 논의 구조를 운영했습니다.

정례회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 분과개편, 로고 제작, 청년송 협업, 청년정책 논의 등 협의체의 정체성과 활동 기반을 만드는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제 6 기 협의체는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여수 청년들과의 소통 기능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를 고민했습니다.

정례회는 단순한 내부 회의가 아니라, 협의체가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례회 사진

총회

제 6 기 협의체는 활동 기간 중 총 2 회의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1 차 총회는 2025 년 11 월 27 일 진행되었으며, **총 7 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운영규정 전면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제안된 7 개 정책은 제 6 기 협의체의 1 차 공식 정책제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차 총회는 2026 년 4 월 17 일부터 4 월 18 일까지 진행된 워크숍 일정의 마지막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의 건이 의결되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2 차 정책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 년 총회 단체사진



총회에서 청년정책을 여수시에 정식 제안했다

청년의 날 청년페스타 현장 활동

제 6 기 협의체는 **2025 년 9 월 20 일 청년의 날**을 맞아 열린 청년페스타에서 협의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에서는 협의체 공식 SNS 홍보,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 청년장애인 인식 퀴즈,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청년과 시민을 직접 만나며, 여수 청년들이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듣고 협의체 활동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는 이후 협의체의 일자리·교육 의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현장 의견수렴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청년장애인 인식 퀴즈는 청년정책이 일자리와 문화뿐만 아니라 포용, 인권, 다양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청년페스타와 연계해 웅천해변 플로깅 활동도 운영했습니다. 약 20 여 명이 참여한 플로깅 활동은 청년들이 지역 환경을 직접 살피고, 여수의 해변과 공공공간을 함께 가꾸는 실천형 활동이었습니다.

이날 활동과 관련해 송영선 위원장과 김수정 참여.홍보분과장이 시장 표창장을, 우민우 위원이 시의회의장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제 6 기 협의체의 청년참여 활동과 지역사회 실천이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청년페스타 현장 활동은 제 6 기 협의체가 청년을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청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조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페스타 단체 사진



플로깅 활동



청년페스타 부스_SNS 홍보



오프라인 설문조사

제 6 기 협의체는 총 2 차례의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300 여 명의 청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 차 설문조사는 2025 년 9 월 6 일 웅천친수공원 인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여전히 여주시 일자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시정 참여와 소통을 원한다는 정책적 제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차 설문조사는 2026 년 4 월 3 일 학동상가 인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청년이 원하는 여주시 일자리는 무엇일까”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직군 중 병원 등 의료계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단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에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제도 발굴했습니다.

두 차례의 설문조사는 청년정책이 회의실 안의 논의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청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고, 그 목소리를 정책제안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제 6 기 협의체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웅천친수공원 인근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동상가 인근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패널 제작 등 모두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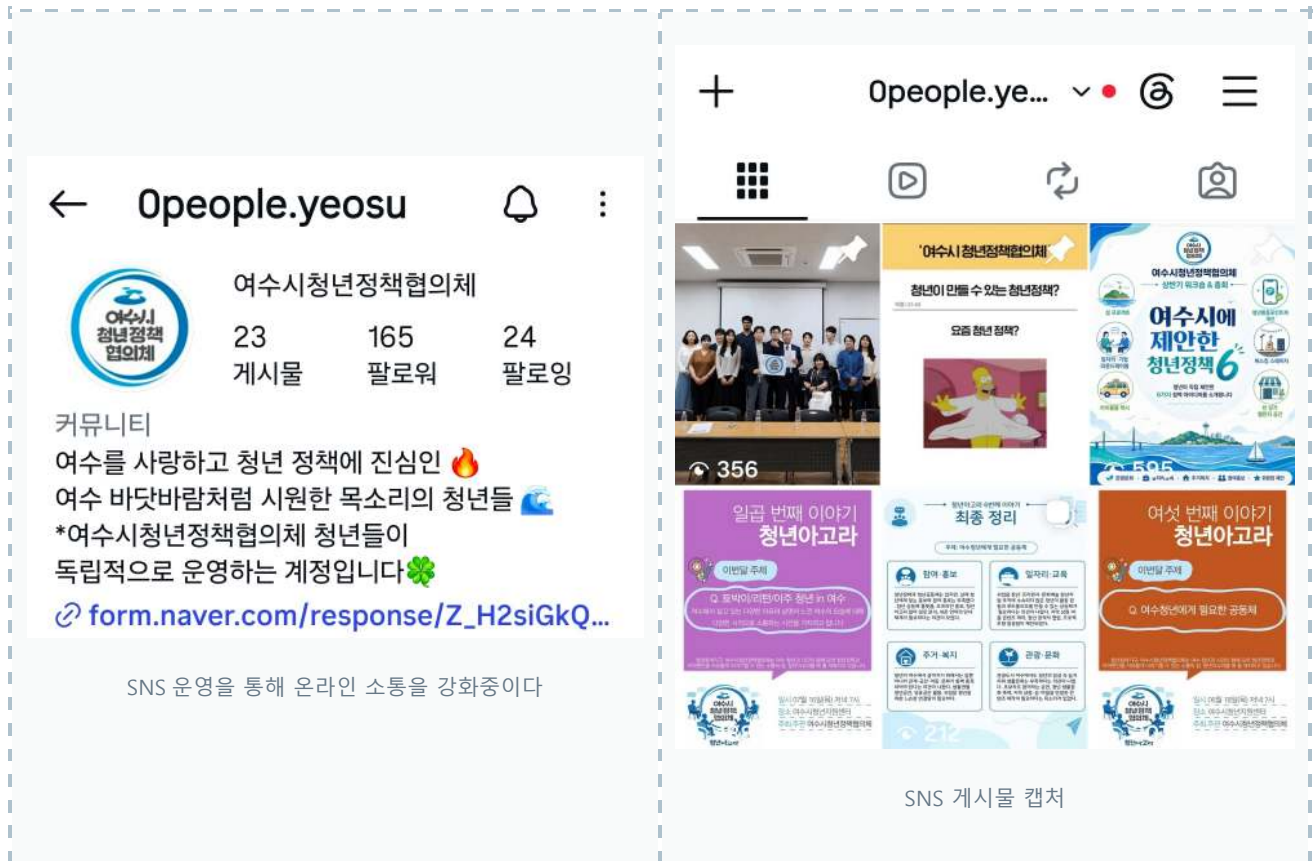
환경보호 목적으로 만든 활동깃발과 함께

SNS 와 홍보활동

제 6 기 협의체는 공식 인스타그램 @0people.yeosu 를 통해 협의체 활동과 청년정책을 알렸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릴스를 포함해 총 36 개의 게시물을 발행했고, 165 명의 팔로워와 소통했습니다. 대표 콘텐츠는 협의체 활동 아카이브였으며, 정책제안과 청년아고라 결과를 포함해 제 6 기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SNS 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협의체 활동을 기록하는 공개 아카이브**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공식 SNS 개설과 운영이 **별도 예산 없이 재능기부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제 6 기 협의체의 자발성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SNS 게시물 캡처

로고 제작과 청년송 협업

제 6 기 협의체는 활동 과정에서 협의체의 정체성을 시민과 청년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로고 제작과 청년공동체활성화 지원팀과 청년송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로고는 2025 년 9 월 4 일 순수 재능기부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2025 년 9 월 24 일에는 청년공동체 버스커발굴지원단과 함께 청년송 제작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정책을 문서와 회의의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문화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다가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청년송 제작은 협의체의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 청년들이 정책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홍보·문화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이 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이 행정적 제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청년문화와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조청회 — 아침에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다

2025 년 9 월 26 일, 제 6 기 협의체는 미평 맥도날드에서 “조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조청회는 “아침에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다”는 의미를 담은 활동으로, 정해진 회의실을 벗어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청년정책을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청년정책 논의가 꼭 공식 회의나 행정적 자리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 만나는 시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청회는 제 6 기 협의체가 청년정책의 형식과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였습니다.



조청회 사진

대외 참여와 정책 네트워크 확장

제 6 기 협의체는 여수시 내부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남과 지역 청년정책 관련 다양한 자리에도 참여했습니다.

2025 년 10 월 28 일에는 청년정책플랫폼 사업 인터뷰에 참여했고, 11 월 13 일에는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에 초청되어 참여했습니다. 12 월 2 일에는 넥스트로컬사업 네트워크에 초청되어 참여했으며, 12 월 5 일에는 전남 청년의 목소리 워크숍에 초청되어 참여했습니다. 12 월 11 일에는 청년정책플랫폼 중간보고회에도 참여했습니다.

2026 년 2 월 10 일에는 청년비전센터 동부권 건립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과정은 여수 청년정책이 여수 안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남 동부권 청년정책과 지역 간 청년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외 참여는 제 6 기 협의체가 여수 청년의 목소리를 더 넓은 정책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와 흐름을 참고하며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외 초청 참여하면서 협의체를 홍보하고 나아가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 활동 깃발 제작

2026 년 4 월 1 일, 제 6 기 협의체는 활동 깃발을 제작했습니다. 대형깃발 1 기와 손깃발 5 기를 제작했으며, 이는 활동 현장에서 협의체를 알리고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깃발 제작에는 환경보호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매번 활동마다 일회성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깃발을 제작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협의체 활동 깃발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 6 기 협의체가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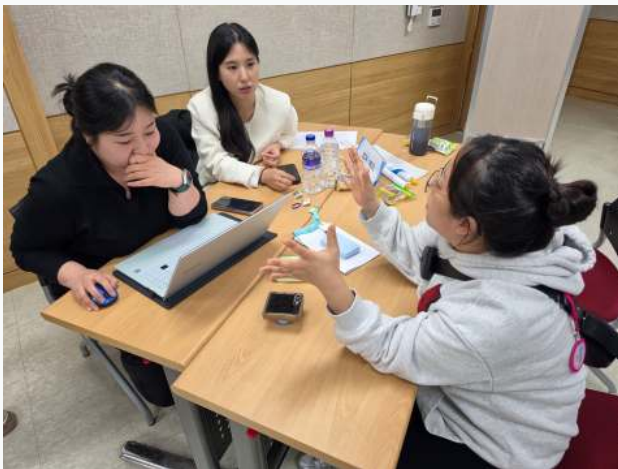
대형깃발 및 손깃발 사진

정책제안 워크숍

제 6 기 협의체는 **2026 년 4 월 17 일부터 4 월 18 일까지 정책제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지역 청년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 제안서로 정리할 수 있는지, 정책제안이 행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제 6 기 협의체가 단순히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목소리를 정책의 언어로 바꾸는 역량을 키운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책제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실제 정책제안서 작성으로 이어졌다

송년회와 성과보고

제 6 기 협의체는 **2025 년 12 월 4 일 성과보고회**를 진행하고, **12 월 29 일 송년회**를 통해 한 해 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과보고회는 제 6 기 협의체가 추진해 온 활동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청년송을 공동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청년공동체사업 지원 버서커발굴지원단 청년들과 함께해 그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송년회는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한 위원들이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다음 활동을 위한 연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협의체 활동이 단순한 회의 참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공동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청년송 공연



위촉 후 약 6 개월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오늘은 회의 말고 회식 입니다!

민선 9 기 당선인 청년정책 간담회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는 2026 년 6 월 24 일, 민선 9 기 위기극복시민주권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장 서영학 당선인과 위기극복시민주권기획위원회 관계자, 협의체 위원, 일반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약 100 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20 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는 지난 1 년 동안 정례회, 청년아고라, 오프라인 설문조사, 분과별 논의 등을 통해 수렴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당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민선 9 기 여수시에 바란다. 여수 청년 정책제언집 — 여섯 번의 청년아고라에서 발견한 여수의 문제와 청년이 원하는 도시의 미래」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송영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청년을 정책 수혜자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학 당선인은 청년들을 시정의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간담회는 제 6 기 협의체가 청년정책 제안기구를 넘어, 시정 전환기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책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청년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여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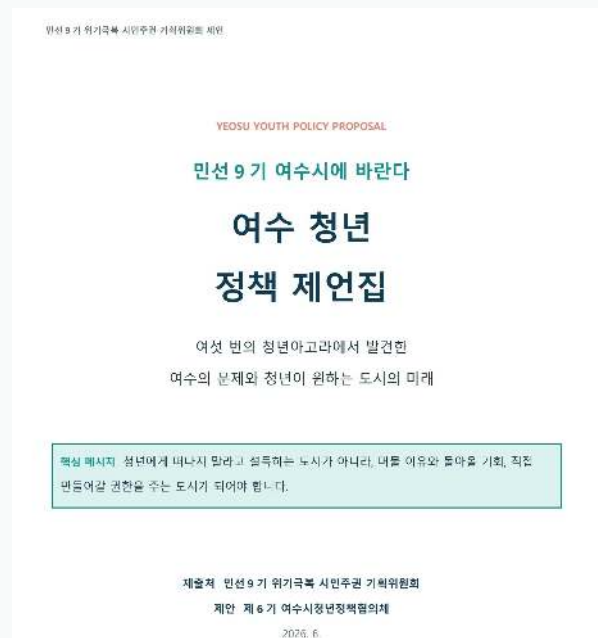
민선 9 기 서영학 여주시장 당선인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정 정책파트너로서 청년과 함께



정책제언집과 함께 전달한 협의체 활동손짓발



여수시 청년들의 목소리와 정책제안이 담긴 제언집

청년아고라 기록

청년이 여수를 말하는 열린 공론장

청년아고라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의 대표적인 공론장 활동입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청년정책이 일부 위원이나 행정 내부의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시민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의 문제와 가능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아고라는 어려운 정책 용어나 행정 중심의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자신의 일상 언어로 정책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주거, 일자리, 문화, 정주여건, 통합특별시, 청년공동체, 지역정착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분과회의와 정책제안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청년아고라 운영 배경

청년아고라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제 6 기 협의체가 운영 구조를 조정해 만들어낸 공론장이었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별도의 활동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청년 활동의 특성상 퇴근 이후 저녁시간에 모이는 것이 현실적이었고, 대관 문제 역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분과회의와 운영위원회의를 심의 역할로 정리하고, 정례회를 주요 안건 의결의 장으로 운영하되, 정례회 시간을 조정해 청년아고라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청년아고라는 정치적 성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여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토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언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나온 목소리를 추후 정책제안서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년아고라는 예산이 충분해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협의체가 운영 방식을 바꾸며 만들어낸 공론장입니다.

청년아고라 회차별 기록

회차	일시	주제	주요 내용
1 회	2026. 1. 22.	청년이 말한 현실, 정책의 출발점	여수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주, 참여 문제를 자유롭게 공유했습니다.
2 회	2026. 2. 19.	여주시 문화 인프라 수준 / 청년 정주정책	생활문화공간, 청년 문화 접근성, 여수에 머물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3 회	2026. 3.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 청년정책	통합특별시 흐름 속에서 여수 청년의 삶과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4 회	2026. 4. 16.	여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재밌을까요?	청년축제, 버스킹, 야간문화,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도시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5 회	2026. 5. 21.	여수의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	여수의 장점을 살린 청년정책, 청년자율예산제, 정책제안 구조, 청년참여 확대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6 회	2026. 6. 18.	여수 청년 공동체와 연대	청년단체, 공동체, 청년연대의 필요성과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7 회	2026. 7. 16.	토박이/리턴/이주 청년 in 여수	여수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유와 여수의 모습을 토박이, 리턴 청년, 이주 청년의 시각으로 나누는 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년아고라 로고



청년아고라 현장사진

일곱번의 이야기, 청년아고라의 의미

청년아고라는 단순히 청년들이 소통한다는 의미를 넘어 7 회차 주제인 “토박이/리턴/이주 청년 in 여수”처럼 여수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여수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와 경험 그리고 서로 다른 청년들의 시선을 함께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 새롭게 여수로 이주해 살아가는 청년은 같은 도시를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청년의 시선을 통해 여수라는 도시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청년아고라는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은 행정의 언어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 기대, 바람을 말할 수 있어야 정책의 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청년아고라를 통해 청년들이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여수 청년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수 청년은 하나의 얼굴이 아닙니다.

CHAPTER 06

정책제안 결과

청년의 경험을 정책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는 활동 기간 동안 총 2 차례에 걸쳐 여수시에 공식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 차 정책제안 7 건, 2 차 정책제안 6 건으로 총 13 건의 정책제안이 정리되었습니다.

정책제안은 어느 한 회의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례회와 분과회의, 청년아고라, 오프라인 설문조사, 청년페스타 현장 의견수렴, 정책제안 워크숍, 총회 논의를 거치며 여수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문제를 정책의 언어로 바꾸어간 과정이었습니다.

정책제안 흐름

01 청년아고라	02 설문조사 등 현장의견 수렴	03 분과회의
05 운영위원회와 정례회	06 총회 논의	07 여수시 공식 제안

정책제안은 결과물이 아니라,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 차 정책제안

연번	정책제안명	백서용 요약
1	청년도서관매비 / 대학생 전공책 지원	여수 지역 대학생과 전입 청년의 학습비 부담을 줄이고, 자기계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2	여수시 청년일자리 TF 운영 활성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행정, 기업, 청년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입니다.

연번	정책제안명	백서용 요약
3	안전지킴 헬멧 대여사업	개인형 이동장치와 생활 이동 수단 이용 과정에서 청년과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입니다.
4	청년 전담 공인중개사	청년들이 주거계약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5	유희공간 공유오피스 활용	지역 유희공간을 청년 창업자, 프리랜서, 취업준비생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공간으로 전환하는 제안입니다.
6	여수시 청년버스킹 부스 설치	청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수의 거리문화와 자율성 높은 청년문화를 함께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7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명칭 변경	청년들이 더 쉽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센터의 명칭과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2 차 정책제안

연번	정책제안명	백서용 요약
1	여수 섬 지역 유희공간 활용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지원	여수의 섬과 유희공간을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험형 문화·관광 프로젝트로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2	청년-기업 직무공감 라운드테이블 상시 운영	지역 기업과 청년이 정기적으로 만나 직무, 채용, 산업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자는 제안입니다.
3	여수형 아이사랑 탄탄택시 운영 및 이동 바우처 지원	아이를 키우는 청년가정과 양육가정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돌봄과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4	청년활동포인트제 개선 제안 (여수시 초간단 청년활동포인트)	청년정책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이 더 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인트제 운영방식을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5	기존 버스킹 사업 고도화를 위한 상시 자유공연 환경 조성	기존 공연사업과 별도로 청년예술인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상시 공연환경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6	유희공간 활용 청년 도전실험공간 조성 및 운영	청년의 창업, 문화기획, 커뮤니티, 정책실험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도전공간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정책제안이 남긴 의미

제 6 기 협의체의 정책제안은 총 13 건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청년의 삶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되, 서로 연결된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참여는 각각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청년의 삶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제안의 출발점을 **청년의 실제 경험**에 두었습니다. 청년아고라와 설문조사, 청년페스타 현장 의견수렴, 분과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제안자이자 파트너**로 세웠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청년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넘어, 청년과 함께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CHAPTER 07

분과별 활동 기록

참여·홍보 분과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당도록 만들었습니다

참여·홍보 분과는 제 6 기 협의체의 활동을 시민과 청년에게 알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0people.yeosu 를 운영하며 청년아고라, 정책제안, 협의체 활동 기록 등을 시민에게 공유했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 명칭 변경과 청년활동포인트제 개선 제안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을 더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했습니다.

청년페스타 부스 운영을 통해 공식 SNS 를 홍보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도 참여·홍보 분과의 활동 방향과 연결됩니다. 참여·홍보 분과의 활동은 청년정책을 “알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이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접근성, 기록, 소통, 참여 확대

연결 정책제안

-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명칭 변경
- 청년활동포인트제 개선 제안 — 여수시 초간단 청년활동포인트



참여·홍보 분과 활동사진

일자리·교육 분과

청년과 지역 일자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했습니다

일자리·교육 분과는 여수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청년페스타 현장 일자리 인식조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 인식을 확인했고,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다양성 부족, 직무 정보 부족, 기업과 청년 사이의 연결 부족을 정책 의제로 정리했습니다.

일자리·교육 분과의 활동은 여수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직군, 직무 정보, 성장 가능성, 기업과의 소통, 시정 참여 기회를 함께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일자리 다양성, 직무 이해, 기업 연결, 성장

연결 정책제안

- 유희공간 공유오피스 활용
- 여수시 청년일자리 TF 운영 활성화
- 청년-기업 직무공감 라운드테이블 상시 운영



일자리·교육 분과 활동사진

주거·복지 분과

청년이 여수에 머물 수 있는 생활 기반을 고민했습니다

주거·복지 분과는 청년이 여수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안전지킴 헬멧 대여사업, 청년 전담 공인중개사, 여수형 아이사랑 탄탄택시 운영 및 이동 바우처 지원 등 청년의 안전, 주거, 이동, 돌봄과 연결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페스타에서 진행한 청년장애인 인식 퀴즈 역시 청년정책이 포용, 인권, 다양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활동이었습니다.

주거·복지 분과의 활동은 청년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살 집, 안전한 이동, 돌봄과 생활복지,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함께 필요합니다.

핵심 키워드 정주, 안전, 이동, 돌봄, 생활 기반, 포용

연결 정책제안

- 안전지킴 헬멧 대여사업
- 청년 전담 공인중개사
- 여수형 아이사랑 탄탄택시 운영 및 이동 바우처 지원



주거·복지 분과 활동사진

관광·문화 분과

청년이 즐기고 표현하고 기획하는 여수를 제안했습니다

관광·문화 분과는 여수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이 일상적으로 즐기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청년도서관매비 및 대학생 전공책 지원, 청년자율버스킹 부스 설치, 섬 지역 유희공간 활용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상시 자유공연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청년이 즐기고 표현하고 기획하는 여수를 제안했습니다.

청년송 제작 공동프로젝트와 청년페스타 현장 활동 역시 청년정책이 문화적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관광·문화 분과의 활동은 여수의 문화정책이 관광객 중심을 넘어, 지역 청년의 일상과 창작 활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청년문화, 버스킹, 섬, 유희공간, 기획

연결 정책제안

- 청년도서구매비 / 대학생 전공책 지원
- 여수시 청년자율버스킹 부스 설치
- 여수 섬 지역 유희공간 활용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지원
- 기존 버스킹 사업 고도화를 위한 상시 자유공연 환경 조성
- 유희공간 활용 청년 도전실험공간 조성 및 운영



관광·문화 분과 활동사진

제 6 기 활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청년정책의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제 6 기 협의체가 가장 중요하게 시도한 변화 중 하나는 청년정책을 더 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정책은 종종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 속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문제는 훨씬 구체적이고 일상적입니다.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여수에 머물고 싶지만 선택지가 적다는 것, 문화행사는 있어도 직접 참여할 기회는 적다는 것, 정책은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들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청년아고라는 이러한 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청년들이 정책을 잘 몰라도, 행정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년이 있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회의실 안에서만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웅천친수공원과 학동상가 인근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설문조사, 청년페스타 부스 운영 그리고 청년아고라는 청년이 있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에 참여한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수 청년들이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시정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이 일자리, 문화, 복지, 포용, 환경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부족과 재능기부 속에서도 활동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제 6 기 협의체의 초기 활동은 충분한 예산과 자원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SNS 개설과 운영, 협의체 로고 제작 등은 모두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협의체 구성 대부분이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활동시간 등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6 기 협의체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여건 속에서 협의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고, 청년들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청년페스타 부스 운영, 오프라인 설문조사, 청년송 공동프로젝트, 초청회, 청년아고라 등은 모두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활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청년참여기구가 예산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참여자의 문제의식과 실행력,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참여를 축제와 일상, 환경 활동으로 확장했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청년정책을 회의실 안의 논의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페스타 부스 운영을 통해 축제 현장에서 청년과 시민을 직접 만났고, 일회성 현수막 대신 활동 깃발 제작 등을 통해 환경과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실천했습니다.

또한 초청회와 청년송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정책이 더 편안한 대화와 문화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제 6 기 협의체가 청년정책을 “제안서 작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청년의 일상, 문화, 환경, 참여 경험과 연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을 확장했습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분과개편, 운영체계 구조화, 로고 제작, 청년송 협업, 공식 SNS 운영, 청년페스타 부스 운영, 플로깅, 초청회, 청년아고라, 오프라인 설문조사, 정책제안 워크숍, 총회, 정책제언집 전달까지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1 차 정책제안 7 건과 2 차 정책제안 6 건, 총 13 건의 공식 정책제안은 제 6 기 협의체가 청년의 의견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정리해 여수시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정주정책으로 확장했습니다

제 6 기 협의체의 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청년이 여수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은 일자리만으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에게는 다양한 일자리와 성장 기회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복지, 이동 여건, 문화활동, 관계망, 참여 기회가 함께 필요합니다.

제 6 기 협의체는 청년정책을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주정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PRIORITY 1 청년아고라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청년아고라에서 나온 의견이 분과회의와 정책제안으로 이어지고, 이후 행정의 검토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청년참여의 실질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PRIORITY 2 정책제안 이후의 환류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은 제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이 행정에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반영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지 공유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PRIORITY 3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위원들이 좋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자료 접근, 전문가 자문, 현장방문, 회의 공간, 소규모 활동비, 행정과의 소통 창구가 함께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청년자율예산제를 포함한 청년기본조례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PRIORITY 4 청년참여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청년아고라, 오프라인 설문조사, 청년페스타 현장 의견수렴, SNS, 정책제안 등을 통해 수렴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된다면 향후 여수시 청년정책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PRIORITY 5 청년정책 홍보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알아야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PRIORITY 6 다양한 청년의 삶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청년, 새롭게 여수에 정착한 청년 등 서로 다른 삶의 조건을 가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의 지난 1 년은 여수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불편해하며, 어떤 도시를 꿈꾸는지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아고라에서 나온 말들, 현장 설문조사에서 만난 목소리, 청년페스타에서 만난 청년과 시민의 의견, 분과회의와 총회에서 다듬은 정책제안들은 모두 여수 청년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말하고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는 그 가능성을 지난 1 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거, 문화, 이동, 관계, 참여가 함께 필요합니다.

함께한 사람들

위원장 메시지

안녕하세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송영선입니다.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가 위촉 1 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 년은 우리 협의체가 여수 청년의 목소리를 더 넓게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례회와 총회, 정책제안 워크숍, 오프라인 설문조사, 청년페스타 현장 활동, 청년아고라를 통해 다양한 여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여수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어려움과 바라는 변화, 그리고 여수에 대한 애정과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6 기 협의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청년은 정책을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시정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참여가 일회성 의견수렴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이 말할 수 있는 자리, 제안할 수 있는 구조, 제안이 검토되고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백서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가 지난 1 년 동안 걸어온 기록입니다. 동시에 여수 청년들이 어떤 도시를 바라고 있는지, 앞으로 여수 청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연결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말하고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여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송영선

부위원장 메시지

안녕하세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부위원장 송명훈입니다.

생업과 협의체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어느새 1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새삼 실감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분들을 보며 개인적으로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보다 지역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적어도 출석만큼은 성실히 하자는 마음으로 1 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매월 정례회를 통해 꾸준히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제는 하나의 팀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남은 1 년도 지금처럼 꾸준히 참여하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롭게 취임하신 민선 9 기 시장님과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의 여수는 청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여수에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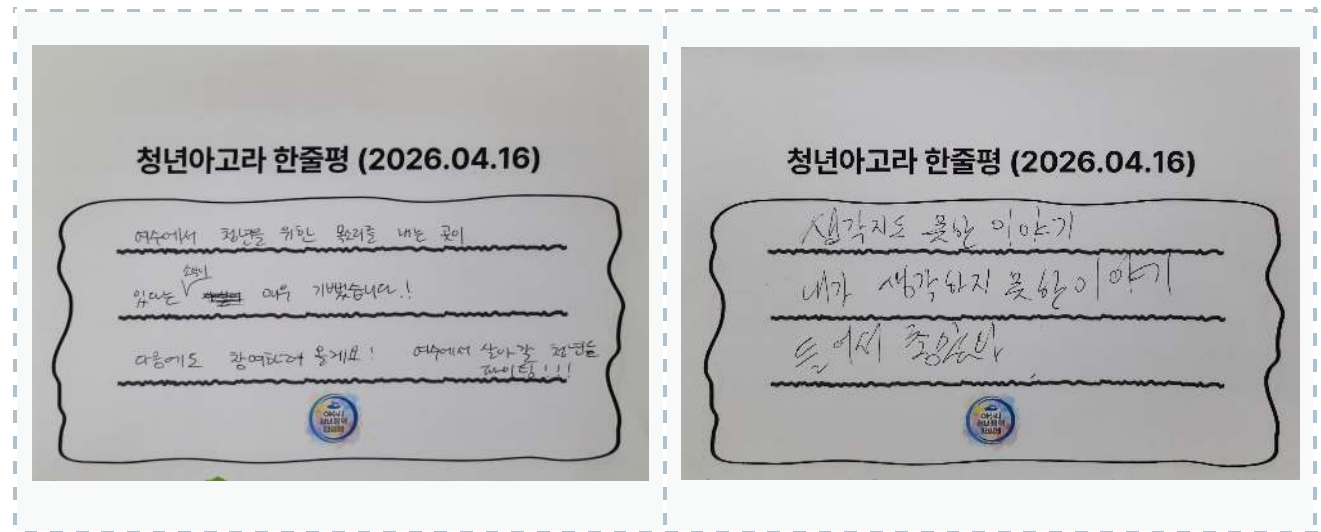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부위원장 송명훈

분과장 메시지

구분	성명	소감
사무국장	김나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수산해양분야를 전공하며, 지난 5 기 때부터 지금 6 기 여주시청년정책협의체 사무국장으로서 3 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하나 둘 여수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졌던 고민에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금까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임해왔습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직무 활동을 지속하며 나아가 여수에 정주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홍보 분과장	김수정	제 6 기 여주시청년정책협의체 참여·홍보분과장 김수정입니다. 소감문을 작성하며 돌아보니 지난 5 기부터 협의체 활동을 이어왔기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분과 개편과 새로운 변화들에 또 다시 배우고 고민하던 시간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을 하는 와중에 결혼준비까지 바쁜 시간들이었네요. 덕분에 그간 외닿지 못했던 주거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내 한 몸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고향 여수에서 맞이하는 미래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청년정책이 누군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갈 청년들의 삶과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청년도시로 모두가 느낄 수 있길 바라며 더욱 청년이 함께 도시를 설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분	성명	소감
일자리·교육 분과장	추승혁	여주시청년정책협의체 소속으로 오전 오후에는 본업과 병행하며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건설적으로 여주시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고민하며 활동했습니다. 단순히 말만 하고 결과물이 없는 활동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해서 무엇이 더욱 합리적이고 우리 청년들 니즈에 맞는지 조사하고 회의하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정책은 단순 입으로 떠는 게 아닌 행동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주시와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정주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청년유출을 막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분과장	윤성용	주거·복지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정주 여건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위케이션과 같이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부터 기존 여수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청년 전담 공인중개사'와 '아이사랑 탄탄택시'라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과원들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청년이 정주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여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 분과장	천주현	여수청년정책협의체 일원으로서 실제로 참여하여 직접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제안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여수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소망해봅니다.

청년아고라 참여자 후기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의 1 년은 위원 참여와 고민 그리고 희생적인 열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책제안서에 담긴 문장 뒤에는 청년들의 생활 경험이 있었고, 청년아고라의 대화 뒤에는 여수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년들, 청년페스타에서 의견을 나눈 시민들,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 활동을 지켜봐 준 시민들이 함께 있었기에 제 6 기 협의체의 1 년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서는 그 모든 참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여수의 미래를 함께 말하고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특별감사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와 뜨겁게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5 년 07 월~12 월 – 우리의 어려운 첫 걸음마를 위해 휴일 구분 없이 항상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신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소통 박은주** 팀장님, **김영선** 주무관님

255 년 01 월~07 월 – 청년아고라와 간담회 등 성장의 순간에 늘 함께해 주신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정책 김은철** 팀장님, **김용태**, **이슬** 주무관님

그리고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청년페스타 / 청년아고라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의 걸음에 함께해 주신

여수 시민, 여러분.

CHAPTER 10

부록

부록 1. 정책제안 13 건 목록

1 차 정책제안

연번	정책제안명	주요 방향
1	청년도서관매비 / 대학생 전공책 지원	대학생과 전입 청년의 학습비 부담 완화
2	여주시 청년일자리 TF 운영 활성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상시 논의하는 구조 마련
3	안전지킴 헬멧 대여사업	청년과 시민의 생활·이동 안전 강화
4	청년 전담 공인중개사	청년 주거계약 과정의 정보 부족과 불안 완화
5	유희공간 공유오피스 활용	유희공간을 청년 활동·업무공간으로 전환
6	여주시 청년버스킹 부스 설치	청년예술인의 상시 공연 기반 마련
7	여주시 청년지원센터 명칭 변경	청년정책 접근성과 공간 인식 개선

2 차 정책제안

연번	정책제안명	주요 방향
1	여수 섬 지역 유희공간 활용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지원	섬과 유희공간을 청년이 기획·운영하는 실험공간으로 활용
2	청년-기업 직무공감 라운드테이블 상시 운영	지역 기업과 청년의 정보 격차와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3	여수형 아이사랑 탄탄택시 운영 및 이동 바우처 지원	아이를 키우는 청년·가정의 이동 부담 완화
4	청년활동포인트제 개선 제안 (여주시 초간단 청년활동포인트)	청년정책 참여의 문턱 완화와 참여 데이터 축적
5	기존 버스킹 사업 고도화를 위한 상시 자유공연 환경 조성	청년예술인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상시 문화 기반 마련

연번	정책제안명	주요 방향
6	유희공간 활용 청년 도전실험공간 조성 및 운영	청년의 창업·문화기획·커뮤니티·정책실험 지원

부록 2. 청년아고라 회차별 기록

회차	일시	주제	주요 내용
1 회	2026. 1. 22.	청년이 말한 현실, 정책의 출발점	여수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주, 참여 문제 공유
2 회	2026. 2. 19.	여수시 문화 인프라 수준 / 청년 정주정책	생활문화공간, 청년 문화 접근성, 정주 조건 논의
3 회	2026. 3. 19.	통합특별시와 여수 청년정책	통합특별시 흐름 속 여수 청년정책 방향 논의
4 회	2026. 4. 16.	여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재밌을까요?	청년축제, 버스킹, 야간문화, 청년 직접 기획 논의
5 회	2026. 5. 21.	여수의 지켜야 할 것과 바뀌어야 할 것	여수의 장점을 살린 청년정책, 정책제안 구조, 청년참여 확대
6 회	2026. 6. 18.	여수 청년 공동체와 연대	청년단체, 공동체, 청년연대의 필요성과 역할 논의
7 회	2026. 7. 16.	토박이/리턴/이주 청년 in 여수	여수 청년의 다양한 삶과 시선 공유

부록 3. 오프라인 설문조사 요약

구분	일시	장소	주제	주요 확인 내용
1 차	2025. 9. 6.	웅천친수공원 인근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청년들이 여수시 일자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정 참여와 소통에 대한 요구도 확인했습니다.
2 차	2026. 4. 3.	학동상가 인근	청년이 원하는 여수시 일자리는 무엇일까	청년들이 원하는 직군 중 병원 등 의료계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단중심 외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했습니다.

부록 4. 주요 회의 및 활동 기록

구분	횟수·일시	주요 내용
정례회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분과개편, 로고 제작, 청년정책 논의 등
총회 1 차	2025. 11. 27.	총 7 개 청년정책 제안 및 운영규정 전면개정안 논의
총회 2 차	2026. 4. 18.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재선임 의결, 2 차 정책제안
송년회	2025. 12. 29.	한 해 활동 공유와 위원 간 교류
정책제안 워크숍	2026. 4. 17. ~ 4. 18.	정책의 이해, 정책제안 역량 강화, 2 차 정책제안 논의
청년페스타	2025. 9. 20.	협의체 부스 운영, 청년정책 의견 수렴, 웅천해변 플로깅 운영
민선 9 기 당선인 간담회	2026. 6. 24.	서영학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 협의체 위원, 일반 청년 등 20 여 명 참석. 약 100 분간 청년정책 간담회 진행

부록 5. 민선 9 기 청년정책 제언집 전달 기록

구분	내용
일시	2026. 6. 24.
장소	민선 9 기 위기극복시민주권기획위원회 소회의실
참석자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 협의체 위원, 일반 청년 등 20 여 명
진행 시간	약 100 분
전달 자료	「민선 9 기 여수시에 바란다. 여수 청년 정책제언집 - 여섯 번의 청년아고라에서 발견한 여수의 문제와 청년이 원하는 도시의 미래」
주요 메시지	8 개의 정책제안과 청년을 정책 수혜자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의미	청년정책 제안기구를 넘어, 민선 9 기 시정 출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부록 6. SNS 콘텐츠 기록

제 6 기 협의체는 공식 인스타그램 @0people.yeosu 를 통해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했습니다.

구분	내용
공식 계정	Instagram @0people.yeosu
게시물 수	릴스 포함 36 개
팔로워 수	165 명
대표 콘텐츠	협의체 활동 아카이브, 정책제안, 청년아고라 결과 공유

부록 7. 제 6 기 활동 일자별 기록

2025 년 활동

일자	활동명	주요 내용
2025. 7. 21.	위촉식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공식 위촉
2025. 7. 23.	차담회 및 운영위원회	협의체 초기 운영 방향 논의
2025. 7. 31.	분과개편 및 정례회 운영 확정	참여·홍보, 일자리·교육, 주거·복지, 관광·문화 4 개 분과 구성.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정례회 확정. 분과회의, 운영위원회의, 정례회 구조화
2025. 8. 11.	SNS 개설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별도 예산 없이 재능기부로 운영 시작
2025. 8. 21.	여수청년지원센터와 업무협력	정례회 고정 운영 협의. 매회 별도 예약 방식에서 정규일 확정
2025. 9. 4.	협의체 로고 제작	별도 예산 없이 재능기부로 협의체 로고 제작
2025. 9. 6.	1 차 오프라인 설문조사	웅천친수공원 인근에서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진행
2025. 9. 12.	기고문 기고	협의체 및 청년페스타 관련 기고문 여수일보 기고
2025. 9. 20.	청년의 날 청년페스타	협의체 부스 운영. SNS 홍보, 일자리 인식조사, 청년장애인 인식 퀴즈, 청년정책 의견 수렴 활동 진행

일자	활동명	주요 내용
2025. 9. 20.	웅천해변 플로깅	청년페스타와 연계해 웅천해변 플로깅 활동 운영. 약 20 여 명 참여
2025. 9. 20.	청년페스타 표창	시장 표창장 2 명 수상: 송영선, 김수정 시의회의장 표창장 1 명 수상: 우민우
2025. 9. 24.	청년송 제작 공동프로젝트	청년공동체 버스커발굴지원단 X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공동프로젝트 진행
2025. 9. 26.	조청회	“아침에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다” 진행. 미평 맥도날드
2025. 10. 28.	청년정책플랫폼 사업 인터뷰	청년정책플랫폼 사업 관련 인터뷰 참여
2025. 11. 13.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초청 참여
2025. 11. 27.	총회	총 7 개 청년정책 제안 및 운영규정 전면개정안 논의
2025. 12. 2.	넥스트로컬사업 네트워크	초청 참여
2025. 12. 4.	성과보고회	협의체 활동 성과 공유
2025. 12. 5.	전남 청년의 목소리 워크숍	초청 참여
2025. 12. 11.	청년정책플랫폼 중간보고회	참여 및 의견 전달
2025. 12. 29.	송년회	한 해 활동 공유 및 위원 간 교류

2026 년 활동

일자	활동명	주요 내용
2026. 1. 22.	제 1 회 청년아고라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여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공론장으로 시작. 자유로운 발언을 존중하고, 수렴된 목소리를 정책제안서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운영
2026. 2. 10.	청년비전센터 동부권 건립 설명회	참석 및 의견전달
2026. 2. 19.	제 2 회 청년아고라	여수시 문화 인프라 수준과 청년 정주정책 논의
2026. 3. 19.	제 3 회 청년아고라	통합특별시와 여수 청년정책 논의

일자	활동명	주요 내용
2026. 4. 1.	협의체 활동 깃발 제작	대형깃발 1 기, 손깃발 5 기 제작. 일회성 현수막 제작을 지양하고 활동 시 협의체 홍보를 위해 활용
2026. 4. 3.	2 차 오프라인 설문조사	학동상가 인근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설문조사 진행
2026. 4. 16.	제 4 회 청년아고라	"여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재밌을까요?" 주제로 논의
2026. 4. 17. ~ 4. 18.	워크숍 및 총회	정책제안 워크숍 및 총회 진행. 2 차 정책제안 논의 및 6 개 정책 제안
2026. 5. 21.	제 5 회 청년아고라	여수의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
2026. 6. 18.	제 6 회 청년아고라	여수 청년 공동체와 연대 논의
2026. 6. 24.	여수시장 당선인 간담회	민선 9 기 당선인 및 인수위 관계자와 청년정책 간담회 진행
2026. 7. 16.	제 7 회 청년아고라	토박이, 리턴, 이주 청년의 시각으로 여수를 이야기하는 공론장 운영

부록 8. 제 6 기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분과
위원장	송영선	임원진
부위원장	송명훈	임원진
사무국장	김나은	임원진
참여·홍보 분과장	김수정	참여·홍보
일자리·교육 분과장	추승혁	일자리·교육
주거·복지 분과장	윤성용	주거·복지
관광·문화 분과장	천주현	관광·문화
위원	우민우	참여·홍보
위원	유정민	참여·홍보
위원	박 미	일자리·교육

구분	성명	소속 분과
위원	이명주	일자리·교육
위원	차순환	일자리·교육
위원	곽범빈	주거·복지
위원	김태원	주거·복지
위원	서윤미	주거·복지
위원	정수경	주거·복지
위원	정유정	주거·복지
위원	조정화	주거·복지
위원	이기쁨	관광·문화
위원	장우석	관광·문화

부록 9. 자료 출처 및 작성 기준

본 백서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자체 활동기록을 기초자료로 삼았습니다. 공개된 일정과 행사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식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위원 수, 정책제안 건수, 설문·아고라 참여 인원, SNS 실적, 표창 내역 등 내부 운영 수치는 협의체 자체 기록 기준입니다.

자료 확인일: 2026. 7. 18.

청년이 말했고, 협의체가 기록했으며, 그 기록은 정책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의 지난 1 년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말했고, 협의체가 기록했으며, 그 기록은 정책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논의는 청년아고라로 확장되었고, 청년아고라는 현장 설문조사와 청년페스타, 플로깅, 초청회, 청년송 공동프로젝트, 민선 9 기 청년정책 간담회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여수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록이 다음 여수 청년정책의 더 단단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STORY)가 내일, 여수의 역사(HISTORY)가 되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말한 여수, 정책이 시작된 1 년.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기획.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
원고.편집. 송영선
자료수집. 김나은

© 여수시
본 활동 백서는 제 6 기 여수시청년정책협의체의 기록물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길 바랍니다.